

## 오리질병피해 심각 대책마련 부심

올해들어 오리사육농가들의 질병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피해를 줄일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없어 사육농가들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올해초 증부권을 중심으로 질병에 의한 폐사가 급격히 증가하여 사육농가들의 생산성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최근에는 전남지역의 사육농가에서 이같은 현상에 의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오리사육농가들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이 질병은 주로 새끼오리때 폐사율이 20-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떤경우에는 폐사율이 60-70%까지 달해 사육자체를 포기하는 농가도 생겨나고 있다.

경기도 화성군에서 주당 1천5백수의 오리를 입식하고 있는 한 농가에 따르면 새끼오리 입식후 3일령부터 폐사가 일어나 10일령을 전후해서 폐사율이 70%에 달해 오리사육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 농가는 폐사체와 살아있는 새끼오리 5마리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병성감정을 의뢰한 결과 전염성 간염에 의한 것이란 통보를 받았다.

오리사육경력이 10년정도되는 이 농가는 지금까지 새끼오리가 이같이 폐사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특히 지난해부터 1년간 사육장을 비워두고 각종

소독을 한 상태에서 오리를 입식했는데 이같이 폐사가 나는 것을 이해할수 없다며 새끼오리의 품질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했다.

그런가하면 전남지역에 오리사육농가들역시 새끼오리때 폐사율이 높아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좀처럼 폐사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오리사육농가들의 질병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관련업체 및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육용오리 출하일령 다소 지연

중국산 가금육 수입이 재개되면서 오리사육농가들의 육용오리 출하일령이 다소 늘어나고 있고 가격역시 하락하고 있다.

본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부터 오리사육농가들의 육용오리 출하일령이 종전에 비해 3-4일 늘어나 44일령 전후에 출하가 이뤄졌으며 특별한 출하처가 없는 농가는 50일령이 넘어서는 농가도 발생했다.

그런가하면 8월중순 현재는 육용오리 출하일령은 46일령 전후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산지육용오리 가격역시 6월말 7월초의 경우 4천원선으로 종전에 비해 4-5백원이 하락한 가격에 거

래되었으며 8월중순 현재 4천원에서 4천2백원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같이 산지오리 출하일령과 가격이 하락한 것은 수입이 재개된 중국산 오리고기가 6월중순을 전후하여 시장에 풀리면서 국내산 오리고기 소비량이 수입육으로 일부 대체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관련하여 인천에서 국내산 오리고기를 유통하는 한 유통업자는 일일 유통물량이 종전에 비해 10%정도 감소했다며 원인을 분석한 결과 훈제용으로 요식업소에 공급되던 통오리 물량이 요식업소에서 수입육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육용오리 출하일령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여름철 성장을 저하로 출하체중이 미달되면서 적정 출하일령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지연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 중부권지역 새끼오리 판매에 어려움

중부권지역 일부 부화장들이 7월중순 이후 새끼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일부 부화장에서는 새끼오리 판매가격을 종전가격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덤핑판매는 물론이고 판매치 못한 새끼오리는 파묻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8월들어 산란율,부화율이 크

게 줄어들면서 이같은 현상은 8월중순 현재 다소 해소되고 있다.

중부지역 사육농가들에 따르면 7월중순을 전후하여 일부 부화장들이 새끼 판매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종전입식물량보다 많은 새끼오리를 입식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부화장은 새끼오리 가격을 일부 내려 판매하는가 하면 새끼오리 대량 유통업자에 4백원선에 덤핑판매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부화장은 판매치 못한 새끼오리 7천수를 파묻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한 부화장은 판매치 못한 새끼오리를 육용오리 판매조건으로 입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같이 중부지역 부화장들이 새끼오리 판매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재개로 향후 오리업경기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입식을 자제하고 있는데다 추석을 전후로한 소비감소에 대비하여 사육수수를 줄인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올해들어 질병에 의한 새끼오리 폐사가 늘어나면서 오리사육농가들은 농장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사육을 포기하는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관련하여 주당 1천5백수의 오리를 사육하던 한 농가는 「폐사율 증가에 따라 농장운영에 따른 수지타산이 현재의 가격에도 안맞는데 중국산 오

리고기 수입이 본격화되면 가격하락에 따른 농장의 적자운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견돼 사육을 포기하였다」고 밝혔다.

### 중부지역 오리전용도축장 건립 시급

중부지역에 오리를 전용으로 도축하는 도축장의 건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중부지역의 경우 오리를 전용으로 도축하는 임도축장이 없어 이 지역 오리사육농가의 육용오리 출하에 문제가 따르고 있고 유통업자 역시 국내산 오리고기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현재 오리의 위생도축은 전라도 광주 및 목포지역이 위생고시지역으로 되어 있고 지난 97년도에 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은 2003년부터 허가난 도축장에서 오리를 위생도축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중부지역의 오리도축은 대부분의 물량이 유통업자에 의해 잡혀져 유통되고 있고 일부가 도계장에서 도축되어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 도계장의 경우 오리를 잡는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탈모상태가 불량하여 많은 비용의 도축수수료를 주고도 유통업자는 별도로 재손질하여 유통할 수밖에 없어 도계장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대부분의 유통업자들이 일일 2-3

백수의 소규모 유통을 하고 있으나 이같은 물량에 대해서 도계장은 작업해 주지 않고 있다.

일부 도계장에서 작업을 해준다해도 닭을 잡고 맨마지막에 오리를 작업해 주므로서 오리유통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게 유통업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따라서 수입산 오리고기에 대응하여 국내산 오리고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지역 오리를 전용으로 도축하는 도축장의 건립이나 일반도계장의 시설보완에 의한 오리작업장으로의 전환등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게 업계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와관련하여 중부지역의 한 유통업자는 「오리도축사정이 이렇다 보니 불가피하게 자가도축하여 유통하고 있고 환경단속등이 이뤄지면 도계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오리를 제대로 작업해 주는 도축장이 없고 있다해도 거리가 너무멀어 오리고기 유통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내산 오리의 소비확대와 수입산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도축되는 도축장의 건립이 시급하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한편 경기도 지역의 일반도계장은 7개소에 달하고 있고 오리 도축수수료는 5-7백원선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왁스시설이 설치된 작업장이 없어 깨끗한 상태의 도축이 어렵다는게 유통업자들의 지적이다.

**토종닭 오리 유통업자 구속  
도축폐기물 무단투기로**

토종닭 오리 등을 자가도축하여 도축된 폐기물을 무단으로 땅에 묻은 유통업자가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지난 10일 양주군 관계자에 따르면 양주군 장흥면 공릉천 주변에서 오리 및 토종닭을 잡아 유통하는 농씨가 도축되고 남은 내장 및 털등 도축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여 폐수발생에 따른 수질오염으로 구속되었다고 밝혔다.

폐기물 무단투기로 구속된 이 업자는 지금까지 6만여수의 닭오리 등을 자가도축하여 여기서 발생된 도축폐기물을 땅속에 무단으로 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한 폐기물에서 폐수가 배출되어 심한 악취와 수질을 오염시키자 주변의 신고로 경찰에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계당국은 이와관련한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지역 유통업자들의 철저한 주의에 따른 오리고기 유통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명예감시원 10명 위촉  
수입오리 불법유통 단속업무시작**

수입오리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불법으로 유통되는 물량에 대한 현실적인 단속업무가 시작됐다.

농림부는 지난 7월12일 본회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명예감시원으로 추천한 10명의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위촉을 승인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소속된 이 10명의 명예감시원은 수입산 오리고기가 원산지 표시없이 국산으로 둔갑판매되는 물량에 대하여 각지역 지소와 합동으로 단속업무에 들어갔다.

이번에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10명의 감시원은 지역적으로 파주, 수원, 양평, 인천, 온양, 대전, 원주, 광주에 각 1명씩과 부산지역에 2명이 위촉됐다.

한편 지난 1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오산,용인,화성출장소는 명예감시원 하반기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본회에서 추천한 명예감시원 역시 교육에 참여하여 활동상황에 대한 교육과 감시원증을 받았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은 국내 오리업계의 현실을 설명하고 참석한 명예감시원들에게 오리고기 불법유통근절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중부지역 오리농가  
지나호우로 큰 피해**

지난 7월 경기도 수원,용인 등에 3백mm이상 내린 집중호우로 이 지역 사육농가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집계됐

다.

지난 집중호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안성지역 농가들로 축사붕괴 및 수해로 인해 사육중인 오리가 대량 폐사하는 사태가 발생됐다.

이 지역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의 대부분이 지난호우로 물이차 적게는 1백마리에서 많게는 2만마리의 오리가 폐사하거나 물에 떠내려가는 사태가 발생됐다.

경기도 안성에서 오리 2만5천수내외를 사육하는 한 농가는 이번 집중호우로 새끼오리 6천수내외가 물에 떠내려가고 축사3동이 붕괴하여 약2만수 내외의 오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같은지역에서 오리 2천수내외를 사육하며 유통하는 한 농가는 오리 5백마리가 폐사하였다.

이와같이 지난 호우로 오리사육농가들의 피해가 큰 것은 한꺼번에 많은 비가내린데다 대부분의 농가들이 산과 인접하여 많은량의 물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축사를 덮쳤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 남원에 오리전용도축장 완공 오리도축업무 개시

전북 남원에 오리만을 전용으로 도축하는 임도축장이 건립되어 원활한 오리도축 유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 남원에 위치한 코리아더키드(대표 문순금)는 지난 6월말 일산 1만5천수의 오리를 도축할 수 있는 오리도축장을 준공하고 도축업무에 들어갔다.

전남나주의 영진축산과 부산의 베델농산(대표 윤천수)이 공동투자하여 준공된 이 도축장은 부지 6백50평에 기존 도계장시설을 오리라인으로 전체를 교체하여 위생적으로 오리를 잡는 도축 업무에 들어갔다. 특히 이 도축장은 기존도계장으로 허가된 도축장을 오리전용라인을 설치하여 오리만을 도축하는 임도축장이라는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도축장 준공과 관련해서 문 대표는 「기존 닭과 오리를 함께 도축하는 작업장에서 오리를 도축하여 유통하였으나 작업이 불편하고 도체품질역시 원하는대로 잘나오지 않아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위해 도압장을 준공하게 되었다」며 「좀더 깨끗하고 위생적인 오리고기가 생산될 수 있도록 도계장 운영에 역점을 두어 국내산 오리고기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향후 운영방안을 피력했다.

한편 이 도축장은 지난 7월말현재 일일 5천수내외의 오리를 도축하고 있으나 작업인원이 40명에 달해 현재의 인원으로도 일일 1만5천수의 작업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작업장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 중국산 수입재개 이후 오리고기 수입량 급등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이 재개되면서 오리고기 수입량이 급등하고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재개이후 6월과 7월 두달에 걸친 오리고기 수입량은 8백99톤으로 전년 같은기간 수입량 340톤에 비해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중 국별 수입량은 중국산이 전체 수입량의 56.4%에 해당하는 507.8톤, 태국산이 368.7톤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하였으며 미국은 22톤으로 2.4%, 프랑스가 353kg으로 0.2%를 차지했다.

금액상으로는 1백86만7천7백불어치(한화 21억4천7백만원)로 전년대비 1.9배 증가했다.

이와같이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재개 이후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거리상 가까워 수입이 용이한데다 가격역시 타국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재개이후 가장 우려되는 것은 수입다변화에 의해 전체 오리고기 수입가격이 더욱 낮아지므로서 국내산 오리고기의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고 중국산의 경우 현재의 정밀검역기간이 끝나면 수입물량이 더욱 늘어나 국내산 오리고

기 소비위축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생산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데서 나오고 있다.

## 친환경농법중 오리농법비중 크게 증가

친환경농법에 의한 벼농사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리농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가 지난 7월 집계한 친환경농법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친환경농법으로 벼농사를 짓는 재배면적은 2,171ha로 전년대비 25% 증가하였으며 재배농가는 3,613호로 전년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오리농법은 전체 재배면적의 53%인 1,156 ha로 전국 82개 시군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오리농법 분포도를 보면 양평이 658농가에 277ha로 가장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인 107농가에 101ha, 안성 76농가에 48ha, 여주92농가에 79ha, 홍천67농가에 37ha, 원주30농가에 17ha, 철원36농가에 82ha, 연기32농가에 26ha, 홍성84농가에 91ha, 함평25농가에 21ha, 무안14농가에 17ha, 의성 14농가에 6ha, 의령20농가에 7ha, 강화 40농가에 18ha등이다.

한편 오리농법에 이용된 오리는 10평당 1마리를 기준으로 할 때 346,800마리의 오리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